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4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제 37호)

e-날씨이야기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제 37호)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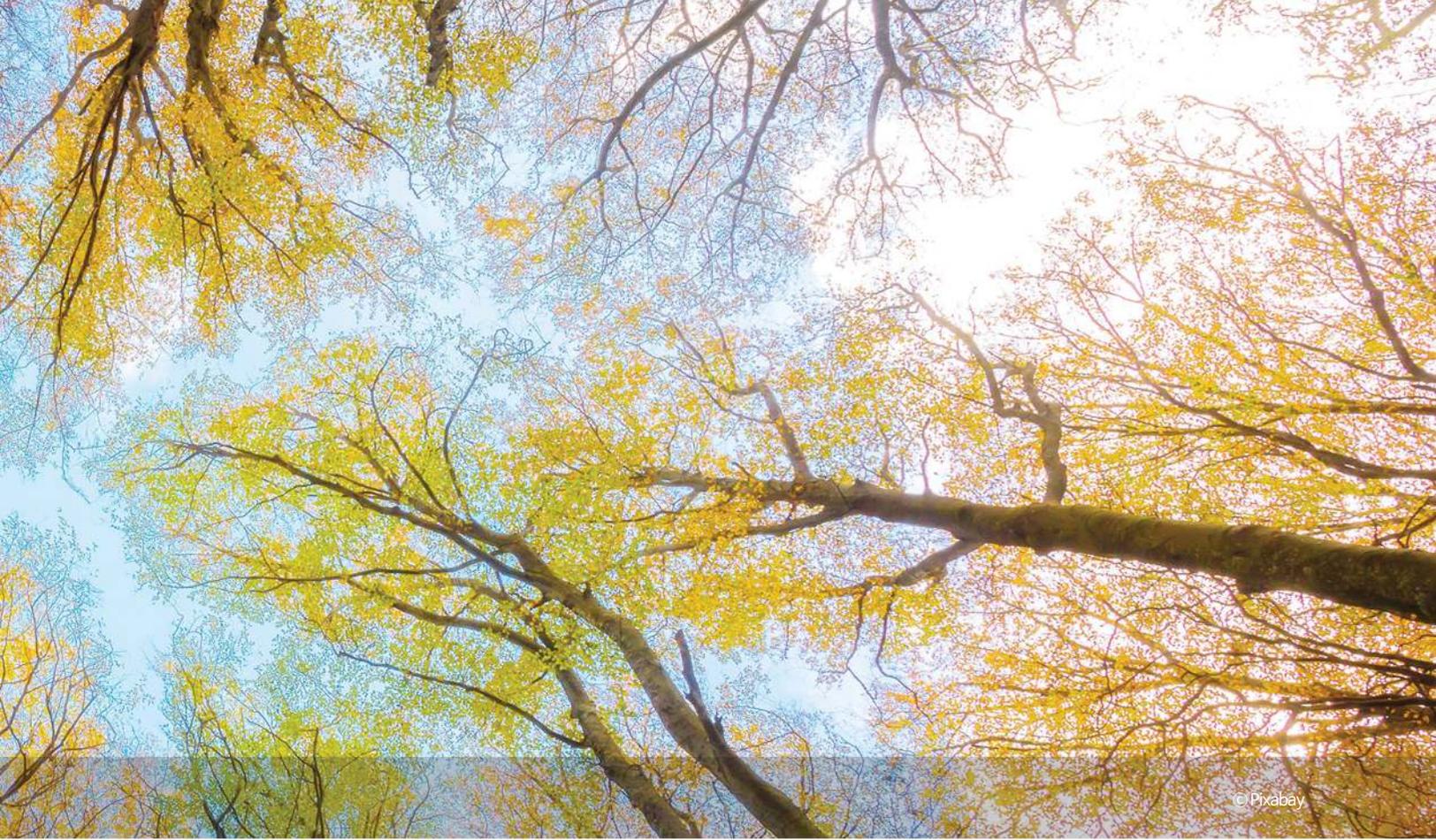
기상청장 기고

- 05 / 기상청 단풍 정보와 함께 즐기는 가을의 정취
- 07 / 여름 태풍보다 위협적인 가을 태풍
- 09 / 가을별은 봄별보다 이로우까
- 11 /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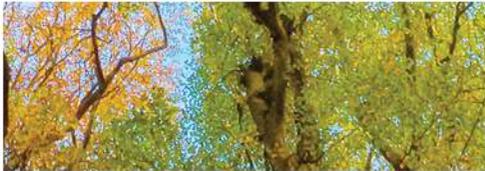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3 /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4 /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4 /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45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 49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 50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4년 11월 29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장은석(예보과), 임나영(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인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현정(기후서비스과), 김호(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동영(관측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상용(예보과), 박성진(관측과), 박현진(기후서비스과)

서희진(예보과), 이정섭(관측과), 이지훈(기후서비스과), 이재영(예보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임나영(관측과), 조현지(관측과), 최유미(관측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상청 단풍 정보와 함께 즐기는 가을의 정취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낮의 길이, 기온, 습도 등
다양한 기후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立秋)와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處暑)를 지나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름이 지나갔음을 느낀다. 아스팔트 위 뜨겁게 달아오르던 아지랑이, 강렬한 햇볕 아래 푸르른 나무들과 매미의 울음소리를 떠나보내며 울여름과 인사를 한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과 상쾌한 바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단풍을 기다리며, 이번 가을에 대한 기대를 품어 본다.

단풍은 기후 요소들의 변화로 나뭇잎에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 녹색을 띠던 잎이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낮의 길이, 기온, 습도 등 다양한 기후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길었던 낮이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 되면 낮의 길이(광주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 활동도 줄어든다. 엽록소 생성이 멈추고 조금씩 분해되면서, 녹색을 나타내는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노란색의 크산토펜, 붉은색의 안토시아닌 등의 광합성 보조색소가 겉으로 드러나며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하고 울긋불긋한 색으로 잎이 서서히 물든다.

일최저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이 많을수록 더욱 아름답고 선명한 단풍을 맞이할 수 있다. 특히 단풍의 화려함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붉은색의 안토시아닌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에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갈 때 가장 선명한 색을 나타낸다. 그만큼 단풍은 낮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산꼭대기부터 단풍이 든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추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물(식물·동물)과 기후(서리·얼음·눈 등) 요소들의 계절관측을 진행하고 있다. 가을에는 서울의 북한산, 강원 설악산, 제주 한라산 등 전국 21개 유명산의 단풍 현황을 관측하는데,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약 20% 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일, 약 80%가 물들었을 때를 절정일로 한다.

단풍의 시작일과 절정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991~2020년(최근 30년) 평년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관령의 오대산이 10월 15일로 가장 이르고, 광주의 무등산과 정읍의 내장산이 11월 4일로 가장 늦다.

기후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단풍 시작일과 절정일이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계절관측의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인 평년값은 최근 30년간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1981년부터 2010년의 평년값과 1991년부터 2020년의 평년값을 비교했을 때, 전국 대부분 유명산의 단풍 시작일과 절정일이 과거보다 늦어졌다.

유명산 단풍의 절정일은 시작일로부터 약 2주 뒤이지만 그 당시의 일교차나 강수량 등의 영향에 의해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유명산 단풍 현황을 활용하여 가을 산행을 계획한다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져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기상청의 단풍 정보와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가을의 정취를
깊이 만끽하길 바란다.



여름 태풍보다 위협적인 가을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일반적으로 10월까지
발생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기운이 도는 가을이 왔다.

마냥 시원한 바람만 불면 좋겠지만 가을철에는 강력하고 위협한 바람인 태풍이 찾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일반적으로 10월까지 발생하는데 2020년 이후 9월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상륙한 태풍은 총 5개다.

2020년 '마이삭'과 '하이선', 2021년 '찬투', 2022년 '힌남노'와 '난마돌'이 그 태풍들로 우리나라 곳곳에 커다란 피해와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가을에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 주변 바다를 포함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수록 태풍의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진다.

가을에는 여름내 뜨거웠던 해수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특히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9월에 가장 높기 때문에 가을철 태풍은 막강한 위력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해 일본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 여기에 차가운 북서풍이 점차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는데 태풍이 품고 있는 기온과의 온도 차가 커지면서 강한 대기불안정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가져와 큰 피해를 만든다.

한편 기상청은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하강해 가을에는 라니냐가 발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라니냐로 전환되면 따뜻했던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더 상승하게 돼 많은 수증기를 에너지로 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과거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낸 경우가 있는데 2016년 '차바', 2020년 '마이삭'과 '하이선'이 대표적이다.

기상청에서 발간한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SSP5-8.5)에 의하면 아열대 기후 지역의 경계가 점차 북상해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와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92.6%가 아열대 기후 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증가해 앞으로 태풍으로 인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표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면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평소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최신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올가을 태풍이 아닌 선선한 바람만이 불어오기를 바라며 기상청은 가을철에 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을별은 봄별보다 이로우니까?

봄과 가을,
두 계절의 햇볕에는
차이가 있을까?

파란 하늘 아래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강한 햇볕으로 피부가 금방 달아오르는 여름과 달리 가을에는 따사로운 햇볕을 만끽할 수 있다. 포근한 햇볕으로 가벼운 산책이나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봄이 그렇듯, 가을도 따뜻한 햇볕과 함께 등산이나 단풍 구경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봄과 가을은 모두 햇볕을 쬐기 좋은 계절인 듯한데 두 계절의 햇볕에는 차이가 있을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4월과 10월의 평균 일사량을 비교해보면, 4월이 535.1MJ/m²로 10월의 383.1MJ/m²보다 높았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봄이 가을보다 많아, 봄별이 가을별보다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을별이 봄별보다 조금 덜 따갑고 더 부드럽게 느껴진 것은 우리의 느낌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햇볕을 받는 우리 몸의 반응도 봄과 가을에 다르다.

우리 몸은 햇볕에 포함된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데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많이 만들어졌기에 가을철에는 봄철보다 자외선을 잘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봄보다 가을에 햇볕을 쬐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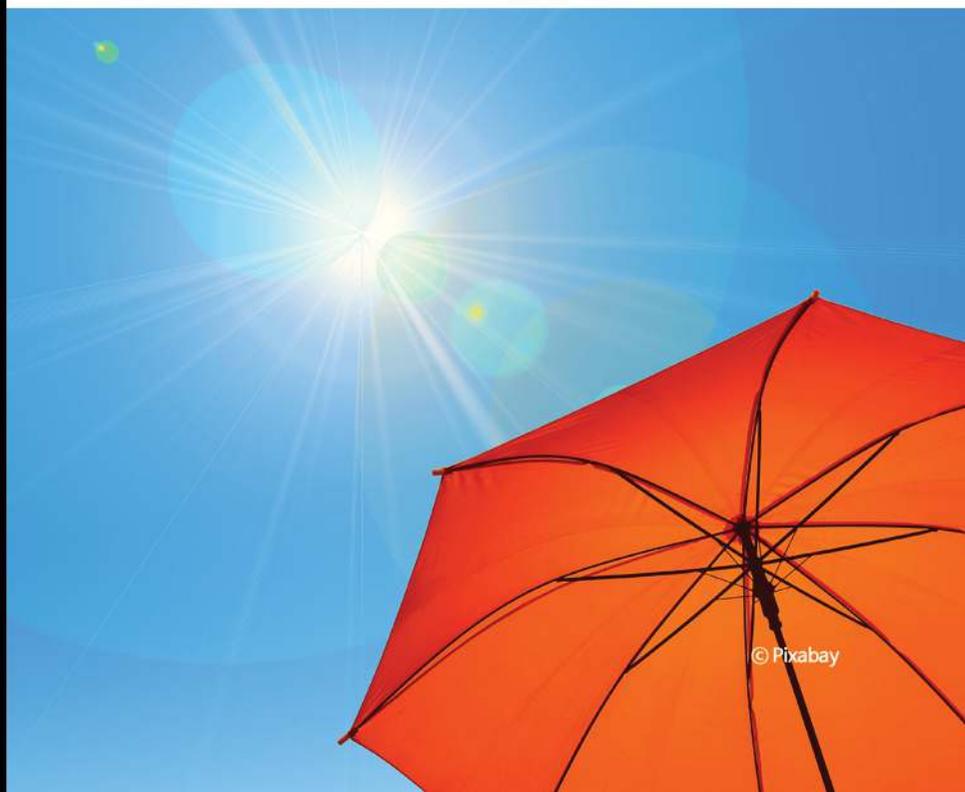
하지만 가을철이라도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가을별이 부드럽고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많아도 자외선을 완전히 방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로 파장이 가시광선보다는 짧고 X선보다는 긴 전자기파다.

파장 영역에 따라 자외선 A, B, C로 구분되는데 자외선 A는 315~400nm의 파장으로 지표에 대부분 도달한다. 자외선 B는 280~315nm의 파장으로 대기 중에 약 90%가 흡수돼 일부만 지표에 도달하며, 자외선 C는 100~280nm의 파장으로 대기 상층의 오존층에 의해 모두 흡수돼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외선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의 합성을 돕는 등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피부 노화나 피부암이 유발 되는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외선 A는 계절에 상관없이 비슷한 강도로 지표에 도달하며 피부 깊숙이 침투해 주름과 피부 노화 등에 영향을 주고 여름철에 강해지는 자외선 B는 피부 표면에 영향을 줘 색소 침착, 홍반, 피부암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기상청은 기상 조건에 따라 태양으로부터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량을 지수화한 '자외선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5단계로 구분한 자외선지수를 하루 중 태양이 떠 있는 시간 동안 3시간 간격으로 글피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단계별 대응 요령도 함께 제공하므로 외출 전 기상청 날씨 누리에서 자외선지수를 확인한다면 피부를 보호하며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첫눈이 아닐까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떠오르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첫눈'이 아닐까 싶다. 첫눈은 매년 찾아오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함과 설렘을 전달하기에 유독 특별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풍경을 보며 설레는 마음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곤 한다.

눈은 차가운 공기와 바다의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 대기 중의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눈구름이 형성돼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는 얼음 결정으로, 눈 결정은 여러 형태를 띠지만 보통 2mm 정도의 크기다. 첫눈은 그해 겨울 처음 내리는 눈으로 보통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0도 이하가 되고 수증기가 응결돼 눈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관측된다.

눈은 형성되는 상태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며 크게 함박눈, 가루눈, 싸락눈, 진눈깨비로 나뉜다. 먼저 함박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급격히 응결해 형성된 크고 무거운 눈송이로 습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따뜻하며 바람이 세지 않은 조건에서 내린다. 습기가 많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잘 뭉쳐져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대로 가루눈은 대기 중의 습도가 낮고 기온이 낮은 조건에서 형성돼 바람에 쉽게 날리고 서로 뭉쳐지지 않는 성질을 띤다. 그래서 발로 밟으면 눈의 결정이 부딪쳐 소리가 나고 푹신한 느낌을 받게 된다. 싸락눈은 기온이 영하인 상태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 작은 얼음 알갱이 형태로 내리는 눈이다. 마지막으로 진눈깨비는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는 기상현상으로 대기 상층에서는 낮은 기온으로 눈이 만들어지고 대기 하층에서는 기온이 상승해 비가 내릴 때 발생한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은 기상학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겨울철의 기압 패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상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첫눈이 내린 후 지표에 쌓이면 공기가 더 차가워져 지표면 근처에 냉기가 머물게 되면서 한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눈은 대기 안정도를 높인다. 눈이 내리는 과정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지만 내린 눈이 쌓이면 지표면의 열이 대기로 쉽게 전달되지 않아 대기가 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하곤 한다.

또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해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눈이 내린 후의 맑고 청량한 공기는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선사한다.

하지만 첫눈이 내리는 시기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은 기상학적으로 중요한 현상

쌀쌀한 바람과 함께 어느새 첫눈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다. 소중한 사람들과 첫눈을 맞으며 겨울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눈이 내리는 날에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겨울의 매력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4.9.9.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관할 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원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담당부서 과장 외 6명과 대전지방기상청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충남권 기후변화 분석정보 사용자 매뉴얼 상세 설명과 함께 서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안) 토의를 하였다. 앞으로도 지방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정책 수립 지원을 지속 및 강화할 예정이다.



2024.9.11.

2024년도 추석 명절 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대전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인 열매마을의 집을 방문하여, 성금과 쌀, 과일, 물티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를 격려했다. 대전지방기상청의 이웃사랑 실천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9.11.~10.8.

‘논산시 대기오염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시범운영 관련 관측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논산시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논산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 약 1개월간 목표관측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논산시 광석면과 연무읍에서 4차에 걸쳐 총 7일간 지상관측을 실시하고, 회차별 고층관측을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이번 관측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시범운영기간 중 비교·검증 자료로 사용되어 보다 안정적인 기상정보 서비스 정식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9.12.

2024년 찾아오는 문화교실 3차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찾아오는 문화교실 3차로 마크라메 공예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크라메(macramé)는 매듭공예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이번 문화교실에서는 평매듭을 통해 예쁜 꽃 등을 꽃을 수 있는 브이넥 월행잉을 만들었다. 바쁜 업무 일상을 잠시 벗어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었다.



2024.9.12.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특정관리해역(가로림만 · 당진 평수구역) 분리 합의안 도출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관계기관 및 어업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수구역의 해상기상특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분리 조정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원 전원이 경계선(당진 교로리 최북단~당진화력 12번 등표) 설정과 명칭(태안 · 서산 북쪽 평수구역, 당진 평수구역)에 찬성하였다.



2024.9.13.~10.31.

2024년도 하반기 나의 간부 찾기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부서와 직급을 넘어 직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나의 간부 찾기’를 운영하였다. 총 25명의 직원이 9월 4주부터 10월 3주간 개인별 간부를 대상으로 미션활동을 실시하였고, 10월 31일 다함께 모여 활동결과와 간부를 공개하고 시상을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규 및 저연차 직원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9.21.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기상과학 음악축제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9월 21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기상과학 음악축제를 개최하였다. 축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풍물패, 댄스팀의 공연과 다양한 과학 원리들이 숨어있는 마술 공연,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홍성군가족센터 등 협업을 통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2024.9.22.~11.30.

기후변화과학 및 기상업무 홍보를 위한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 녹음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함께하는 푸른 미래’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번 콘텐츠는 기상이변과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현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율적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전지역 공동체 라디오 한밭 FM(93.7MHz)으로 9월 28일~10월 11일(2주간) 송출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출품 등을 통해 지역민의 기후변화 이해확산 및 탄소중립 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2024.9.25.

대전지방기상청 자체 폭력예방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작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감수성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판단기준, 사례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이 건전한 성인식 정착과 양성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9.26.

낙뢰 예측기술 공유를 위한 예보기술발표회 발표

예보기술 발표 내용

예보기술 특성 검증결과

<'18~'22년 가이드언스 기준값> → 검증 → <'23~'24년 봄철(3~5월)>

SSSI
8 이하
LI
8 이하
TT
39 이상

총 15건

13 건

예보기술 특성 예보와 가이드언스의 비교

낙뢰 발생일자	단기 통보문	새로운 가이드언스
2024	3.29	○
	4.3	○
	4.15	○
	5.26	○
	3.9	○
2023	3.12	○
	4.11	○
	4.15	○
	4.16	○
	4.18	○
	5.13	○
	5.22	○

새로운 가이드언스가
단기 통보문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낙뢰 가능성을 보고 있음

가을철 분석 내용

가을철 특성 5년('18~'22년)동안 낙뢰 발생일의 불안정지수 조사

53건 → 하위 30%에 해당하는 16건 제외

<'23년 가을철(9~11월)>

SSSI
7 이하
LI
5 이하
TT
40 이상

총 15건

13 건

가을철 특성 낙뢰발생일자

낙뢰발생일자	단기 통보문	새로운 가이드언스
9.3	○	○
9.4	○	○
9.6	○	○
9.16	○	○
9.17	○	○
9.20	○	○
10.14	○	○
10.24	○	○
10.26	○	○
11.4	○	○
11.5	○	○
11.6	○	○

봄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이드언스가
단기통보문에서
보지 못한 낙뢰를
조금 더 보고 있었음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최근 이상기후로 낙뢰 발생빈도가 함에 따라, 낙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낙뢰 예측 기술 보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 예보기술발표회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다. 최근 5년간 ('18~'22년) 대전·세종·충남에 친 낙뢰를 대상으로 기존의 불안정 지수들의 교집합을 구하여 낙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낙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4.9.27.~28.

가을 사이언스데이 체험형 과학 콘텐츠 행사 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9월 과학주간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제고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가을 사이언스데이에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였다. 국립중앙과학관 야외 광장에 기상관측차량과 드론·기상관측장비를 전시하고 관람객 대상으로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하고 관측차량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기상청 업무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과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4.10.5.~27.

지역 축제 연계 ‘찾아가는 기상과학관’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5~6일 예산 의좋은 형제, 10월 26~27일 서산 버드랜드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기상과학관」을 운영하였다. 우산꾸미기, 탄소 게임 등 체험을 통한 기상과학 지식을 보급하여 기상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인근 지역 축제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2024.10.12.

세종 차 없는 거리 '세종에서 그린(Green) 소.확.행' 기상·기후 홍보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시민들의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종 차 없는 거리 '세종에서 그린(Green) 소.확.행' 행사에 참여하여 기상·기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기후변화과학주제 홍보 영상, 탄소중립 실천행동키링만들기와 더불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한 기상캐스터 방송 체험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세종·충남 지역민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의 기후변화과학이해도 향상과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 역할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환경 실천 행동)



2024.10.17.~11.4.

가을 유명산(계룡산) 단풍 시작 및 절정 계절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공주 계룡산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대표 유명산으로 지정하여 매년 단풍 시작과 절정 현황을 관측하고 있다. 근경은 계룡산 동학사 자연관찰로 시작지점의 단풍나무 세그루를 중심으로 관측하며, 원경은 동학사에서 쌀개봉을 바라본 전경을 관측한다. 올해 계룡산 단풍 시작은 10월 17일로 작년보다 1일 느리게 관측되었으며, 절정은 11월 4일로 작년보다 5일 느리게 관측되었다.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7.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워크숍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 관계기관 방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여름철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후특성에 대해 돌아보고, 참석자 전원에게 PC를 제공하여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직접 활용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하여 기상정보의 이해력을 높이고 시스템 활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10.17.

대전지방기상청 나눔바자회 마켓캐롯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나눔 바자회인 '마켓캐롯'을 운영하였다. 9월 19일부터 약 3주간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물품 188점을 기증 받았고, 10월 17일 바자회를 개최하여 314,500원의 수익금을 내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하반기 마켓캐롯 수익금을 11월 21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의 연탄 구입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2024.10.22.

2024년도 관·학·군·연 기상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기상 증가로 충남권 기상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2024 관·학·군·연 기상기술교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 외에도 공주대학교, 공군기상단, 국가기상위성센터, 충남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KAIST가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는 장마철 집중호우 영역 진단 관련 연구, 최신 기상기술 및 기관특성을 반영한 연구 등 총 7개의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2024.10.22.

2024년 하반기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현지 합동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지보수업체 간 현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지 내 기반시설과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차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현장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위험기상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정확한 기상예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4.10.23.

대전지방기상청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23일 정보보호 담당자 및 관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최근 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 보호 실천 전략 등의 내용을 다룬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29.

2024년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3년부터 기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10월 29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 위원 및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기후위기·탄소중립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제언을 듣고 '24년 주요 성과 및 '25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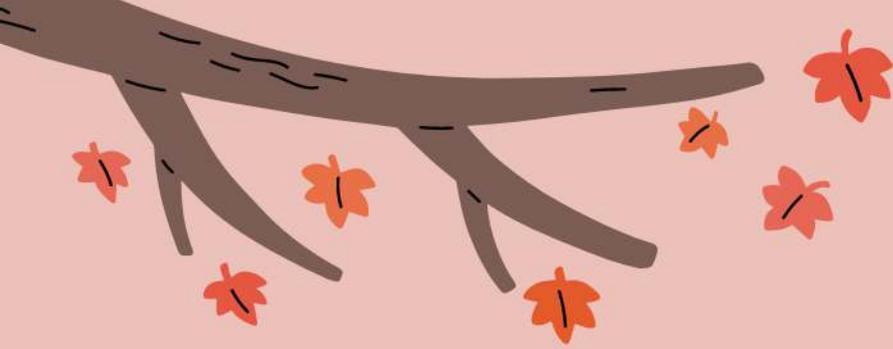


2024.10.24.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기상업무 현장 교육 및 견학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재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상청 진로 안내와 예보센터 견학 및 국가기상업무 소개 등을 포함한 이번 교육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만족’ 이상 응답률이 100%로 집계됨으로써 지역사회 대기과학 전공 대학생들의 기상청 업무와 기상·기후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 향상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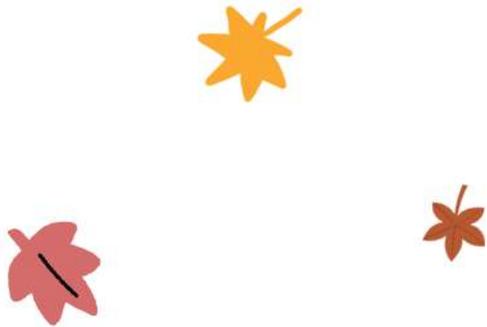


2024.10.29.~30.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및 6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17개 시도, 7개 시·군구 대상으로 점검하는데 대전지방기상청은 관할 지역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기상관측시설 및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논산시의 축산악취와 대기오염 문제,
대전지방기상청과 **논산시청**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합니다.



논산시 축산악취와 대기오염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2024.10.30.

‘논산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카드뉴스 제작 · 홍보

대전지방기상청은 ‘논산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기상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논산시의 대기오염 및 축산 냄새에 대한 영향 정도를 지수와 분포도의 형태로 논산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논산시의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4.11.4.

겨울철 위험기상 대비 관측기술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기술세미나를 통해 겨울철 대비 기상관측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위험기상(풍랑, 안개, 대설)에 대한 관측 주안점과 실황 감시 방법 등이 다루어졌으며, 적설 관측 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노하우 공유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기상관측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상 장비 장애 대처법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4.11.4.

2024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최종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논산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11월 4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대기오염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결과를 점검하고 수요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2024.11.7.

2024년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소속직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기상가족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진행하는 건강지킴이는 개인별 체격 검사와 근력, 심폐지구력 등 체력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16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1등급 2명, 2등급 1명, 3등급 2명으로 총 5명이 등급 인증을 받았다.

■ 2024년도 관측업무개선발표회

최우수상



2024.11.18.

관측업무개선발표회 참가 및 최우수상 수상

대전지방기상청은 고품질의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해 지난 11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관측업무개선발표회에 참가하였다. 기상청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대전지방기상청은 '앱인벤터를 활용한 관측 현업 최적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관측기술 개선을 통한 신뢰도 있는 기상관측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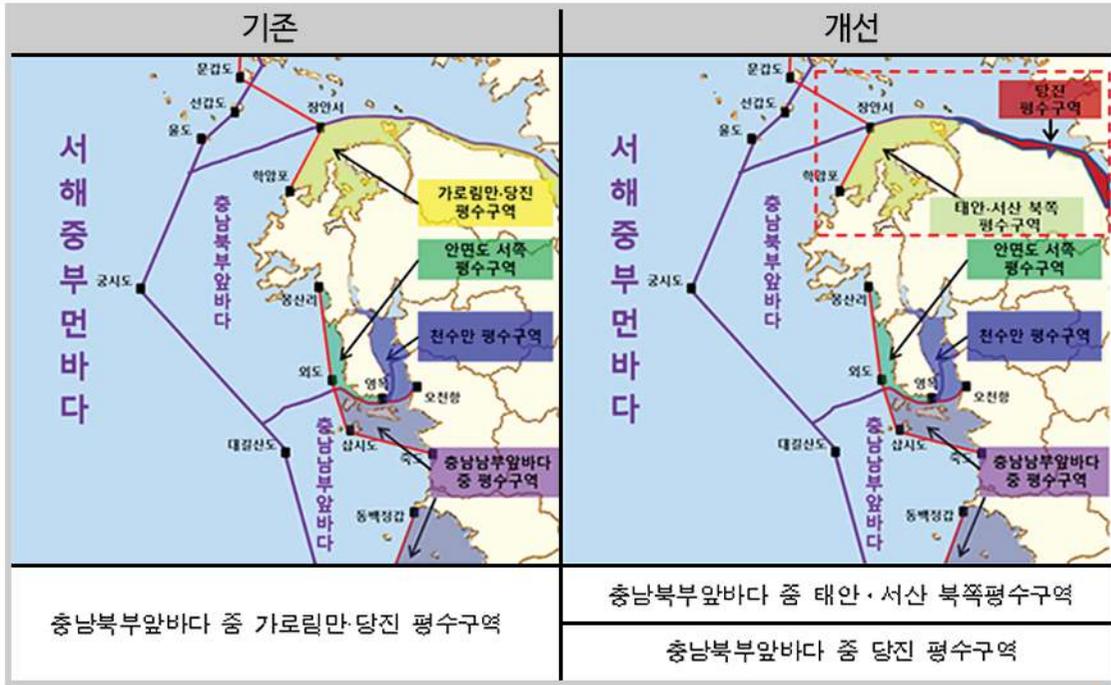
2024.11.21.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탄나누기 활동은 대전시 대덕구 일대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하여 연탄 600장과 쌀, 과일을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계속해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4.11.25.

특정관리해역 세분화 시행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상특보 관할구역인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세분화하여 11월 25일 11시부터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서쪽)과 당진 평수구역(동쪽)으로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특보 구역을 분리 운영한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및 해양기상특성이 반영된 특보구역 조정으로 탄력적인 특보운영을 통한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 및 어업활동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7.

벽에 걸고 보세요 ‘한발 농업기후달력’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지역 농업인들에게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증대와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농사정보를 함께 담은 큰 글자 벽걸이 형태의 ‘2025 한발 농업기후달력’을 발간하였다.

기존 제공하는 달력은 기상기후정보를 전자파일(JPG) 형태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왔으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종이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영농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SEPTEMBER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9.15. 부여 1위 29.7℃, 세종 2위 29.2℃, 금산 2위 28.8℃, 대전 3위 29.3℃
홍성 3위 27.9℃, 천안 3위 27.9℃, 서산 4위 28.4℃, 보령 5위 29.4℃
- 9.16. 서산 1위 28.9℃, 보령 4위 29.4℃, 홍성 4위 27.8℃
- 9.17. 대전 1위 29.7℃, 세종 1위 29.3℃, 금산 1위 29.2℃, 홍성 1위 28.3℃
천안 1위 28.3℃, 보령 2위 29.8℃, 부여 2위 28.8℃, 서산 3위 28.4℃
- 9.19. 보령 1위 30.1℃, 홍성 3위 27.9℃, 부여 5위 28.4℃, 서산 5위 28.3℃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9.10. 대전 1위 36.0℃, 금산 1위 36.5℃, 천안 1위 34.1℃, 홍성 1위 33.8℃
서산 2위 34.0℃, 부여 2위 35.5℃, 세종 2위 35.2℃, 보령 3위 34.9℃
- 9.17. 부여 1위 35.6℃, 세종 1위 35.2℃, 서산 1위 34.4℃, 세종 1위 35.2℃
대전 2위 35.7℃, 보령 2위 35.2℃, 금산 2위 35.7℃, 천안 3위 33.6℃
- 9.19. 보령 1위 37.1℃, 부여 4위 34.8℃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9.16. 세종 1위 24.9℃, 금산 1위 24.8℃
- 9.17. 서산 1위 25.7℃, 보령 1위 26.5℃, 홍성 1위 25.3℃, 부여 1위 24.9℃
세종 2위 24.7℃, 천안 2위 24.2℃



10
OCTOBER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9.20. 서산 1위 221.8mm, 홍성 3위 102.7mm
9.21. 세종 2위 109.7mm, 천안 3위 152.5mm, 금산 3위 138.8mm
보령 3위 136.4mm, 대전 4위 131.2mm, 홍성 5위 98.6mm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10.18. 세종 2위 52.1mm, 서산 3위 109.2mm, 천안 3위 62.1mm, 홍성 4위 52.3mm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10.18. 서산 1위 59.1mm, 홍성 2위 23.5mm, 세종 2위 17.2mm, 대전 3위 21.2mm

중순 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0.18. 보령 1위 21.0°C, 금산 3위 19.9°C, 부여 4위 19.6°C

중순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10.18. 서산 1위 109.2mm, 홍성 1위 52.3mm, 세종 1위 52.1mm, 대전 2위 41.6mm
천안 2위 62.1mm, 세종 2위 13.9mm



10

OCTOBER

중순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10.15. 세종 2위 5.6mm, 대전 3위 17.1mm, 부여 3위 16.0mm, 홍성 4위 6.9mm
- 10.18. 서산 1위 59.1mm, 대전 1위 21.2mm, 홍성 1위 23.5mm, 세종 1위 17.2mm
천안 5위 16.2mm
- 10.15. 홍성 2위 21.7mm, 금산 2위 10.9mm

하순 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0.22. 홍성 1위 15.0°C, 세종 1위 14.8°C, 금산 1위 14.5°C, 보령 2위 16.1°C
천안 2위 14.8°C, 서산 4위 15.3°C, 부여 4위 15.2°C

11

NOVEMBER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1. 2. 홍성 2위 23.6°C, 서산 3위 23.7°C, 세종 5위 23.4°C

중순 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1.16. 대전 2위 16.8°C, 세종 2위 16.7°C, 부여 2위 16.2°C, 금산 2위 15.8°C
천안 3위 15.6°C, 홍성 3위 16.0°C, 서산 4위 15.9°C

중순 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1.15. 보령 3위 22.2°C, 서산 3위 21.8°C
- 11.16. 금산 1위 23.9°C, 천안 1위 23.4°C, 대전 2위 23.7°C, 부여 2위 23.0°C
보령 2위 22.6°C, 세종 2위 23.3°C, 홍성 2위 22.4°C, 서산 4위 21.7°C



식물계절

은행나무	단풍 시작 11. 1.(작년대비 6일 늦음, 평년대비 9일 늦음) 단풍 절정 11. 7.(작년대비 3일 늦음, 평년대비 6일 늦음)
단풍나무	단풍 시작 11. 7.(작년대비 7일 늦음, 평년대비 13일 늦음) 단풍 절정 11.20.(작년대비 5일 늦음, 평년대비 17일 늦음)
유명산단풍 (계룡산)	단풍 시작 10.17.(작년대비 1일 늦음, 평년대비 1일 늦음) 단풍 절정 11. 4.(작년대비 5일 늦음, 평년대비 8일 늦음)

기후계절

첫서리	11. 6.(작년대비 16일 늦음, 평년대비 9일 늦음)
첫얼음	11. 7.(작년대비 4일 빠름, 평년대비 4일 늦음)
첫눈	11.27.(작년대비 10일 늦음, 평년대비 7일 늦음)

※ 기후계절 관측(첫서리, 첫 얼음, 첫눈)은 대전지점 자료 제공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4. 11.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옹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